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로

사도행전 2장 42-47절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꿈꾸는 교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다고

사랑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을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하여 많이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 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혹과도 같이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느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꾸어야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 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또 큰 사고를 내어 불명예제대를 당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는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한 사람의 비극이 한 나라의 비극을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경험해 보셨나요?

아이들은 호되게 꾸지람을 받으면 며칠 후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부모의 사랑이 무너질 때, 그 아이들의 마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랄 때 좋지 않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벤저민 하디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김성권 장로 목상 중에서)

저는 오늘 환경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시작은 아주 적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쓴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2장 1-4절에 보니까,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앓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은 없어지고 120명만이 남아서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120명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현실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여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신실함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환경보다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기다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층에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약속 밖에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열정을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떤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람의 환경 등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환경이란 모두 우리를 위하여 우호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위대함과 탁월함이란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꿈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고,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때에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43절을 보세요.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역사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 약속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섭게 성장하던 때, 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박해와 순교라는 거대한 암초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던 초대교회에서 돌에 맞는 스데반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고,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1장 19-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주 흥미롭죠.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만나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창립기념일이 되면 쉽지 않았던 만나교회의 역사. 즉 ‘천막교회 시절’을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막을 치고 만나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고, 당시 왕십리 감리교회를 담임하던 김우영 목사님은 신도시 영동에서 개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왕십리 감리교회에서는 마음껏 꿈을 펼치고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통에 젖어 있는 중직자들로 인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남매와 함께 왕십리교회 성전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아버지를 도와 개척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영동지역에 자그마한 상가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삼양’교회가 ‘영동’에 개척했기 때문에 ‘삼영교회’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당시 삼영교회 성도들은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우영 목사님을 환영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본래 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에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존재감’이 사라지지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했던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삼영교회’ 세대와 ‘만나교회’ 세대로 나뉘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나교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영 목사님은 교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잠실 별관에 천막을 치고 진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잠실 별관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의 만나교회입니다. 만일 그 때 그 건물에서 내몰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만나교회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와 성령의 역사는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 선교역사는 참 슬픈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훑쓸었던 대학생들의 부흥운동은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한 말 조선은 참 보잘 것 없는 나라였고,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알려지거나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헌신하려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서 오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열정만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선교비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알려진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전, 자치, 자립’이라는 기치 아래 조선의 선교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조선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제대로 선교비를 후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육지책 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선교와 교회 설립의 비용을 토착민 스스로가 부담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대한 선교자금을 쏟아 부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토착민들이 알아서 선교를 해야 하는 척박한 환경 속 한국 교회에서 볼 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애굽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이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인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노라. 내가 너에게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주었노라. 너에게는 그 광야가 너의 가나안이니라.”

선교지는 누가 봐도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그 선교지가 바로 가나안이다.“

- 권순보 권사

무엇이 가나안이고 무엇이 광야인가? 광야나 가나안이나 둘 다 힘들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광야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시기였지, 미션이 따로 없었다. 광야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미션이 있었다. 열두 지파에게 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차지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광야만큼이나 가나안 땅도 무지하게 어려웠다. 광야와 가나안의 공통점은 믿음과 순종이지만 다른 점은 미션의 유무인 것이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오래전에 김우현 감독이 만든 “부흥의 여정”이라는 작품이 제 3회 서울기독교영화축제에 출품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미래의 부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다큐 필름입니다.

영화팀은 부흥의 본질을 찾아서 영국의 웨일즈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1904년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와 친구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리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가난 때문에 탄광에서 일하던 소년, 탄광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소년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친구들을 화요일에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의 근원지는 모리아 교회의 본당이 아니라 옆의 작은 건물 교육관이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웨일즈 모리아 교회에서 시작한 부흥의 불길은 남아프리카, 인도, 미국을 거쳐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까지 번졌습니다.

세계 선교와 부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불길도 바로 웨일즈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역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1906년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특인 노예의 후손이었던 윌리엄 시모어 목사를 중심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흑인의 설교를 백인이 듣는다는 것, 교회에서 흑과 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세대도 뛰어 넘어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곁모양의 화려함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 것 없고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흩어짐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은 흩어져서 번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웨일즈 교회의 선교 지도에는 “한국”이라는 지명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웨일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웨일즈에는 많은 선교 유적들이 있으나 토마스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간 대동강 강변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그는 아내를 잃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때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목이 잘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한문성경을 들고, 미국 상선을 엎어 타고 조선으로 들어와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뿌려진 피가 한국 선교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있던 터에 세워진 평양 과기대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의 손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9년 개교식)

토마스의 순교의 피가 이 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자신을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도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토마스를 죽였던 박해자 박춘권이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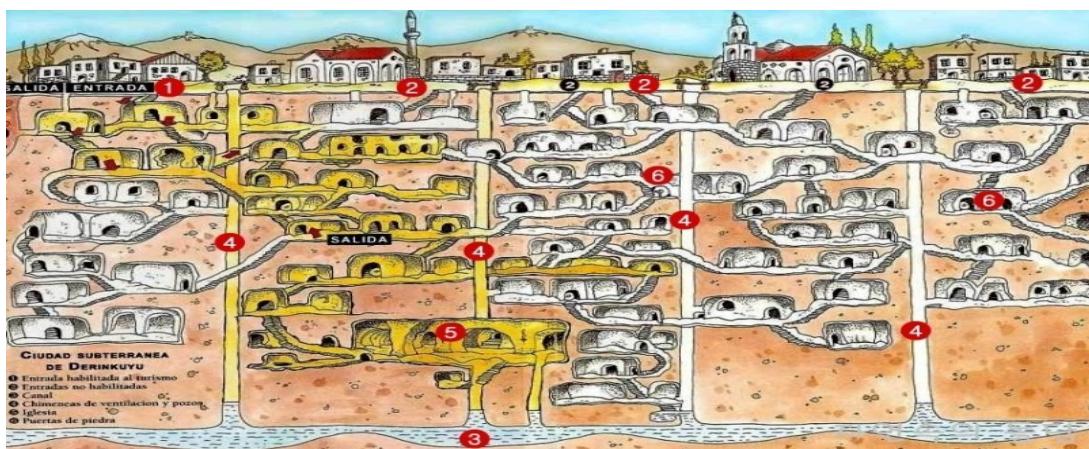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고, 후에 레이놀즈 선교사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2살 먹은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뿐만 아니라 성경 3권을 주웠고, 겁을 먹은 소년은 당시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성경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는 성경을 찢어 자기 집을 도배하는데 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 집이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얼마 후에 장대재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던 이 교회가 1907년 1월 14일과 15일의 부흥을 불길을 붙였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 최지원 권사

이번 주 설교문을 목상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며 우연히 보게 된 〈톡파월 25시〉 프로에서 1세기 종교탄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사를 보여주는 터키의 ‘데린ку유’ 지하도시가 소개됐습니다. 아직 3%도 채 발굴되지 않았음에도 지하 8층 높이의 동굴에는 방, 예배당, 우물, 식량보관소 등이 있었는데 심지어 최대 7만 명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 이란 뜻을 가진 데린ку유를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시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설교문의 설명이 너무도 와닿았습니다.



벌써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제 2의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2007년에 ‘1907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한국교회는 회개와 부흥의 시기를 그냥 지내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던 한국교회에게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으니 말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화점은 ‘1904년’ 원산에서 선교하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던 그는 원산 집회에 강사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던 중 하디는 한국 교인들 앞에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온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무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 속에 뿌리박힌 백인 우월의식으로 인해 조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며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물로 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부흥이 있기 전에는 늘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의 회개 모델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의 회개 운동이 조선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부흥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흥의 결과를 기대하다 보니 ‘인위적’이 되고 ‘진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부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로 인해 인간적 욕망에 찌든 죄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역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야합니다. 선교가 어렵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 시대에 부흥의 발화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부흥의 시발점이 된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민족을 움직일만한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산실이 바로 만나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이 만나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던 때, 이 환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